‘쿠무다’ 개원 9주년 · 명상문화센터 1주년 기념행사

12월 9일 쿠무다 명상문화센터서
개원 9주년 · 개관 1주년 기념법회
12월 26일 종로 JCC 아트센터서
6월 설립 명경문화재단 설립기념
조윤성 피아니스트 음반 발표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 이사장 주석)가 ‘개원 9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 및 음악회를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한다.

‘쿠무다 개원 9주년 · 신축개관 1주년 기념 법회’는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봉행한다.

기념 법회는 축하와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우수 직원에게 시상하는 등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발원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다. 법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식전 공연으로 ‘트리오 리우’의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삼중주가 펼쳐진 후 법회 및 축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12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JCC 아트센터에서는 쿠무다가 지난 6월에 예술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의 설립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의 명상음반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소리-노르딕 챈트(NORDIC CHANT)’ 제작 발표회로 열린다. 쿠무다 후원으로 제작된 조윤성의 명상음반을 소개하며 쿠무다의 문화예술 인재양성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다.

쿠무다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한 음반에는 라싸로 가는 길, 조로서도, 시바의 춤, 티베트로 간 바흐, 헬싱키의 새벽종, 운남의 밤 등 12곡이 수록됐다. 수록곡은 조윤성 씨가 북유럽 음악에 관심이 많던 2017년 당시 핀란드 헬싱키를 여행하며 매일 일기를 쓰듯 즉흥연주로 만든 곡들로, 정(靜)과 동(動)을 오가며 멈춤과 이어짐의 연주가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모친과 함께 도선사를 다니며 불교를 가까이 하게 된 조윤성 씨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에도 참여했다. 지난 5월 8일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부처님오신날 특별 공연을 하며 쿠무다와 인연을 시작했다. 음악회는 전석 초대석으로 진행된다.



‘쿠무다 개원 9주년 · 신축개관 1주년 기념 법회’가 12월 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개원식 모습.

조윤성 씨는 “쿠무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종교와 인종을 넘어 치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음악으로 위로하는 연주자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성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정통 클래식 수업을 받았으며 미국 버클리 음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했다. 미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정상을 향해 질주하는 젊은 재즈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재즈코리아, 라틴코리아 등 10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으며 루시드폴, 폴킴, 윤종신, 이상순, 이은미 씨 등의 편곡자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와 문화예술의 만남을 통해 위로와 치유의 장을 열어 온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으로 전법의 여정을 이어 온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사단법인이다. 쿠무다는 현대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뜻하는 ‘쿠무다’는 북카페 쿠무다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며 꾸준히 문화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북콘서트, 전시회,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 후원사업 등을 펼쳤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는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쿠무다는 명상문화센터 개관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소장 작품전 ‘인연’ 서울 · 부산 전시회, 신년음악회, 봉축음악회, 명상 걷기 등을 개최하며 자체 기획 공연과 문화행사를 새롭게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와 협력해 문화프로젝트 ‘이-음 콘서트’도 진행 중이다. 부산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부산의 문화공연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6월 설립한 문화재단이다. 예술인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발원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지난 7월 7일 동국대학교에 문화예술 인재양성 지원금 3억 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3000만 원씩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첫 기부를 실천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쿠무다를 찾아주시고 즐겨주신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와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전하며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을 전하는 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호국도량 금련사, 全軍의 전법도량으로

11월 25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1972년, 한수 이남 최초 군법당
월남전 승전과 평화 위해 건립
종각 범종 월남전 탄피로 조성
도심 포교 호국 제일도량 발원

월남전 참전용사의 무사 귀환과 승전을 기원하며 창건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제2보급단 부산 금련사(주지 명법)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11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건이념을 돌아보고 도심 속 호국 제일도량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김덕수 금련사 초대 주지를 비롯한 역대 주지 스님들과 마태준 육군종합보급창장,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전봉민 국회의원, 강성태 수영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 △반야심경 △연혁소개 △인사말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 △축사 △법문 △축하무대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도들은 역대 주지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창건 이후 모범적인 신행생활과 봉사로 금련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금련사가 창건 50주년을 기념하며 11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천병태 총신도회장이 총무원장 감사장을 받았으며 백말선, 강훈자, 조재흔, 김선희, 강복선 불자가 교구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어 사령관 감사패는 공형박, 김병수, 하숙이 불자가, 창장 감사패는 이병승, 임은숙, 박금자 불자가 받았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은 법문에서 “무엇보다 수행과 교화로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성장해야 한다”며 “신심과 공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군종 제일 호국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련사 주지 명법 스님은 “금련사는 역대 주지스님들의 노고와 포교활동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함께해주시는 모든 신도님들의 원력에 감사드린다. 오늘 법회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금련사는 불교와 첫 인연을 맺는 젊은 장병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현역 부사관 및 간부들에게는 편안한 귀의처로서 포교와 전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청년 포교의 핵심인 군포교에 진력을 다하며 도심포교에도 앞장 서온 금련사는 군종 사찰의 모범”이라며 격려했다. 아울러 보운 스님은 금련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마태준 육군종합보급창장은 “금련사는 한수 이남 최초의 군사찰이자 지역 주민과 장병들의 마음의 안식처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금련사에서 밝혀지는 연등이 희망의 등불,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호국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소망하며 창건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금련사는 1972년 11월 22일 한수 이남 최초의 군법당으로 건립됐다. 당시 월남전의 승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도량으로 창건됐으며, 특히 종각의 범종은 월남전의 탄피를 모아 조성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창건 배경은 1972년 3월 10일 초대 주지인 재원 김덕수 법사를 중심으로 뜻있는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법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불사 성취를 위해 범어사 능가 스님, 강석진 동명목재 회장 등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원호에 힘입어 4월 28일 기공식 후 12월 13일 낙성식을 거행했다.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이 ‘금련사(金蓮寺)’란 사명(寺名)을 명명하고 친필로 대웅전 및 금련사 휘호를 하사했으며, 친필 원본은 금련사 교육관 장경각에 보존되어 있다.

창건 이후 불사를 거듭해 대웅전과 해수관음전, 지장대불전, 종각, 요사채, 교육관 및 부설 유치원 등을 구비해 도심 속 참회정진 기도도량으로 정착했으며, 현재 비구니 최초 군승인 명법 스님이 군법사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사단 부산, 기후위기 걷기 명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11월 26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일대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종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생태환경 지구 만들기’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과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송재린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 등 부산포교사단 단원들이 동참했으며 입재식 및 명상 걷기, 회향 등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보운 스님은 “산업화 시대에 인간들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 급급했으며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며 “오늘 열리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연과 생명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불교행동실천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송재린 단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걷기명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오늘 행사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을 위한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운동인 전환, 지족, 순환, 참여 4대 기조와 방향을 실천하며 이를 불자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전법의 일선에서 기후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하고 일상 가운데 환경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1월 24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한 달간 〈화엄경〉을 주제로 열리는 화엄산림대법회는 국내 최고 화엄산림 법회로 전국의 불자들이 모이는 정진의 법석이다.

입재법문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신구의 청정으로 산란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회에 참석해서 화엄법문을 들어야한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 지녀야 진정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기간은 한 달간 화엄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어려웠던 코로



나 기간을 마무리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모든 소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저녁예불 후 ‘법성게’ 기도를 이어가며 일요일에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회향은 12월 22일이며 종정 성파 대종사의 회향법문으로 마무리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11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서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이무영, 이하 개인택시불자회)가 11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개인택시불자회는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본부에 난치병 환우돕기 후원금 200만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정채빈(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외 19명의 소년소녀가장학생에게 각 1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개인택시불자회는 시상식에서 불교연합회장상, 연합신도회장상, 지도법사상, 조합이사장상, 금고이사장상, 개인택시불자회회장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서철원, 안우영, 이상철 회원(불교연합회장상), 김성곤, 김순식, 구인규 회원(연합신도회장상), 손문기, 이정호, 차재호 회원(지도법사상), 최성호, 노규완, 박철성 회원(조합이사장상), 심성기, 이기성, 유장묵 회원(금고이사장상), 이갑순, 박기묵, 박경태 회원(개인



택시불자회회장상)이다.

보운 스님은 “창립 34주년을 맞은 개인택시불자회는 부산불교계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다. 생업의 일상 속에서 신행을 놓지 않고 병행하며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신심과 원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무영 회장은 “우리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1988년 7월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창립해 벌써 34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단체로 발돋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봉사와 재능기부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연탄불공회’, 난방유 후원

조계종부산聯, 영도구노인복지관 외 10개 복지관 전달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1월 25일 부산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2022년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는 2017년 범어사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발원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소외 이웃을 위한 난방비 후원 사업이다.

이번 전달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난방비 1300만 원을 영도구노인복지관 외 10개 노인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난방비는 저소득 노인 가구 55세대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사무총장 석산 스님, 정행 스님, 도진 스님, 학산 스님을 비롯해 박시우 부산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협회장 등 지원 복지기관 기관장 등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인사말과 지원사업 사업 일정 안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 이후 스님들은 영도구 지역 내 지원세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



방유를 넣어주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석산 스님은 “무비 스님의 큰 발원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 지원 사업을 이어오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합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함을 전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우 협회장은 “어르신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자비의 김장나눔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11월 29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자비의 김장나눔을 진행했다. 범어사는 매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범어사는 배추 4000여 포기로 김장을 담갔으며, 그 가운데 500포기를 산하 사회복지법인 범어에 전달했다. 김장김치는 사회복지법인 범어 소속 복지기관 14곳에 전달해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신행단체 보현회, 관음회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